1959. 8

다정한 벗 병사 꼬쩨브에 대한 생각

김 창 식

모쓰크바 고리끼 거리
　　엠. 꼬쩨브로부터…라고
다정히 쓴 벗의 편지 받아 들 때면
내 의례히 꺼내여 보는 한장의 사진이 있다.

가장자리 이미 누르스럼하여 퇴색한 사진
삐걱이며 가는 달구지 우
쏘베트 병사 꼬쩨브와 나란이
화보 《쏘련》을 펼쳐 보는 나의 아버지
그들은 그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분명 꼬쩨브는, 해방의 은인은 말하고 있다.
—로인님 여기는 우크라이나 땅
밀 밭에서 뜨는 해
목화 밭 흰 꽃 속으로 지는 땅
밭 가는 이 철마는 뜨락또르입니다.
그리고 명절 차림한 이 사람들
그들은 구락부로 가는 꼴호즈원입니다.

화보를 보며 화보 속에 끌려 드는 로인께
조선의 철마가 논밭을 갈 날은
조선 농촌의 하루 또 하루가
명절처럼 즐거움 속에 흘러 갈
그 날은 머지 않았다고…

쏘련의 한 병사
이 땅의 앞날을 공상하는 눈은
눈은 영채로히 빛나는데
사진에 찍혀진 아버지의 눈'빛
정말 그런가고, 믿기가 어렵다고
의혹의 가벼운 빛으로 출렁이고 있다.

왜 그렇지 않으리
지금은 이렇게 옛'일을 회상하는 나의 가슴우에
그때는 소년단 휘장이 빛나는 시절이였거늘
그때는 해방을 맞은 다음 해 봄철
땅을 받은 은혜만도 태산 같았거늘

다정한 벗
꼬쩨브의 편지를 받아 든 오늘
내 다시 퇴색한 사진을 보느라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나는 두툼한 사진첩을 펼친다.
뜨락또르 달리는 협동'벌을 배경으로
아버지의 웃는 얼굴
기쁨과 환희로 두 눈이 빛나는
한장의 사진을 뜯어 낸다.

나는 그 뒤'장에 써 넣는다.
—엠. 꼬쩨브 동지
땅만 있으면 바라는 것 없다던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처럼
조선은 변하고 또 변하였습니다.
병사여! 그대들의 피가 뿌려진 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꼬쩨브 동지는, 해방의 은인은
얼마나 반가와 하랴는 생각에
마치나 내가 그를 만나려 길 차비나 하는 듯
설레이는 가슴에
벗의 얼굴이 환하게 환하게 안겨 오누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8호 내용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에서

제 5 회

리 호일

영원한 글'발

엄숙히 모자를 벗어 들고
우리는 이깔나무 그루 앞에 섰습니다.
김 일성 원수 이끄신 무적의 부대
숙영한 청봉에서 떠 옮긴 나무

나무에 그분들이 아로 새긴 글'발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모지라져도
우러르면 먹냄새 싱그러이 풍겨 오는듯
이나라 슬기로운 혁명 력사를 이야기합니다.

글'발은 그대로 뛰노는 피'줄이 되여
우리의 가슴에 영원한 생명으로 약동하거니
아 빛나는 애국의 혁명 전통 높이 받들고
김 일성 원수의 훌륭한 전사로 자라겠습니다.

곤난한 행군

밀림에 울부짖는 눈보라를 헤치고
림강에서 수천리 간고한 행군의 길
오직 수령이 가리키는 승리의 길 따라
강철의 대오는 첩첩 준령을 넘었습니다.

용진 용진 나아가세 기술스럽게
억천 만번 죽드래도 원쑤를 치자—
노래 높이 부르며 그이들 뒤를 따라
우리도 승리의 길, 혁명의 길 나아갑니다.

김 일성 원수를 모시고 전투 승리를 축하하는 조선 인민 혁명군 대원들

퉁소도 좋고 피리도 좋습니다.
덩실 가락에 맞추어 춤추는 대원들
보천보에서 참패한 봉창하려고
뒤쫓아 온 왜군을 섬멸한 불사조들

간삼봉이 떠나 갈듯, 13 도구 일어설듯.
원수님 모시고 개선가 높이 부르나니
그 노래 천만대 우리의 가슴 뒤흔들며
온 세계에 자랑차게 울려 퍼집니다.

조국으로 개선한 김 일성 원수

모란봉도 춤추며 일떠서고
대동강도 목청 돋구어 노래합니다.
삼천만의 태양
김 일성 원수 조국으로 개선하셨나니

해방된 삼천리에
광명이 넘치고
자유와 행복의 종소리
민주 수도 평양에서 울려 퍼집니다.

아, 영원한 감격이여
원수님 개선하시는 사진 앞에서
우리는 굳게 다집니다.

천고에 빛날 항일의 홰'불 높이 들고
슬기롭고 용감한
김 일성 원수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바다'가 야영

조선 소년단 중앙 속후 야영소에서

① 삼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엔 녀자 선장도 많아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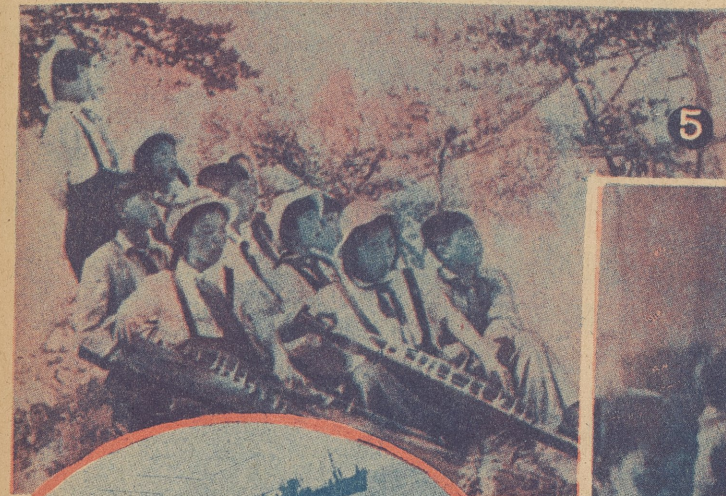
② 고무 구명대를 벗고 자유로이 헤염칠 날도 머지 않았다.

③ 이번엔 큰 고기를 낚는 것만 봐…

④ 신호기로 알려라, 다 같이 행복한 조국을 노래하자고…

⑤ 야영소 예술 축전을 앞두고.

⑥ 바다'가 야영에서의 생활은 바다로부터 시작된다.

⑦ 식사 당번은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즐겁다.

글 조 정 철　　　그림 오 영 복

1937년 봄까지 만금이는 약 70 명의 인민들이 모여 있는 안도현 다황거우의 밀영에 있었다.

이런 밀영에서는 좀 기운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반일 자위대를 조직했다. 혁명 승리를 굳게 믿은 인민들은 어떠한 곤난 속에서도 조금도 굴함없이 왜놈들과 싸웠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유격대를 돕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자위대원들은 유격대원들이 출동한 후 부락 인민들을 보호하였다.

만금이도 이런 반일 자위대의 대원이 되였다.

왜놈의 《토벌대》는 이때 이런 반일 자위대가 있는 깊은 산'골까지 처들어 와서 반일 자위대는 물론이요, 늙은이들과 아동단원들을 습격하군 하였다.

감자와 풀뿌리, 나무 껍질로 겨우 연명해 가는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큰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소금이였다.

외부와 련락이 아주 끊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소금을 구해 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 사람들은 거의 반년이나 소금을 먹지 못했다.

하도 짠 것이 먹고 싶어서 사람들은 느릅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우려 먹기도 했다. 그것은 좀 염분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나무 재'물이여서 먹으면 창자가 할키우고 얇아져서 몸을 상하게 하였다.

잣나무 열매나 그밖에 가지 가지로 대신해 보았으나 몸에 필요한 염분은 취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이것도 이겨 내였다.

이때 만금이는 병으로 누워서 일어도 못나는 형편이였다.

왜놈들의 포위는 더 조여 들었고 한갖 희망으로 삼고 있던 유격대는 1년이 넘도록 소식도 없어 그들의 생명은 참말로 위험에 빠져 있었다.

이런 곤난한 형편에서 그들은 어느 날 살아 갈 도리를 여러 가지로 의논했다. 그중의 누구가 《여기서는 아무리해도 살아 갈 방도가 없으니 할 수 없이 〈통치구〉로 내려 가서 사는 수 밖에 없구려.》하고 말하였다.

이때 병석에 누워 있던 만금이는 일어나 앉으며 똑똑히 말하였다.

《그건 안돼요! 지금까지 굶고 헐벗으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은 것은 자유로운 앞날을 기다린 까닭이 아니예요? 원쑤들을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갖은 고생도 참아 온 것이예요. 그런데 이제 왜놈들의 〈통치구〉로 기여 들어가서 항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예요. 그럼 우리도 개놈이 될게 아니예요. 그보다는 사람으로 깨끗이 죽는 것이 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드라도 여기서 우리 유격대를 기다려야 해요…》 만금이의 뜨거운 이 말 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 들었다.

해'빛도 볼 수 없는 깊은 산림 속에서 그들의 살림 살이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처참하였다. 어느덧 1937년 여름도 가고 나날이 찬 기운을 몰아 오는 가을이 찾아 들었다.

만금이의 병은 다행히 차츰 차도가 있어 이제는 바깥 출입도 하게 되였다.

그 무렵인 어느 날이였다. 문득 군복 차림을 한 두 사람이 밀영에 나타났다. 그바람에 사람들은 왜놈 군대가 온 줄로만 알고 급히 산 속으로 도망치려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안심하오!》하는 소리가 났다. 그 말은 분명히 조선말이였다. 그들은 유격대의 통신원들이였다.

그제야 그들은 안심을 하고 돌아 섰다. 이런 깊은 밀림에서 뜻밖에도 유격대를 만난 기쁨이야 말로 어떠했겠는가.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반가와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더우기 만금이로서 반가운 일은 그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이전부터 만금이를 가리켜 《내딸》이라고 불러 주던 중대 정치지도원 정 빈이라는 분이였던 것이다.

이날 유격대원들은 녀인들이 지어 준 저녁을 먹으면서 소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은 곧 배낭을 풀어 그처럼 먹고 싶던 소금을 내주었다.

그런데 일이 생겼다. 거의 반년동안이나 소금을 먹지 못하던 그들은 그만 소금을 먹자부터 눈을 뜨지 못하게 되였다. 눈앞은 흐리여 서로 누구인지도 분간하지 못하였다.

오래 동안 먹지 못하던 소금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통신원들은 이때 닷새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어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또 앞날을 걱정해서 먼 곳까지 가서 소금을 얻어다 주기까지 했다.

그들은 일년 동안 유격대가 활동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만금이는 궁금해서 아버지의 소식을 물어 보았다. 그러나 통신원들은 만금이의 이 물음에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만금이 아버지는 작년에 전사했기 때문이였다. 그는 왜놈 군대와 싸우다가 적 총탄에 맞고 놈들에게 포위되였다.

그는 다시 다리에 두 번째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용감한 만금이 아버지는 쓰러지면서도 총알이 있는껏 달려드는 적들을 쏘아 죽였다. 마침내 마지막 총알마저 다 쏘아 버리자 그는 다시 맨몸으로 놈들과 싸우다가 그만 전사했다는 것이였다.

이 말을 눈물로 듣고 있던 만금이는 이를 갈며 일어 났다.

저도 이젠 유격대로 나설 때가 되였으니 데려가 달라고… 그러나 통신원들은 말리였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더 참고 반일 자위대에서 활동해 달라는 것이다.

이때 통신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본 부대로 돌아 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서 반일 자위대 조직을 강화하는 일을 맡아 보게 되였다.

그리하여 만금이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자위대 사업을 책임성 있게 진행하였다.

입 대

1938년에 드디여 만금이는 평생 소원인 유격대에 참가하게 되였다.

만금이는 금시 하늘에 날아 오를듯 기뻐 날뛰였다. 그는 곧 안도, 돈화, 화룡 등의 여러 현으로 다니면서 활동하였다.

그동안 그는 왜놈 《토벌대》 놈들과 싸움도 여러 번 했고 적 병영을 처들어 가는 싸움에도 참가하였다.

이해 만금이는 훌륭한 공훈을 세웠다. 어느 날이였다. 만금이는 두 동무와 같이 연길과 안도 사이의 길'가에서 지나가는

왜놈 군대 마차를 습격하여 물품을 로획하여 가지고 돌아 오고 있었다. 이때에 그들은 뒤따라 오던 왜놈 군대 30 여 명과 맞다들게 되였다.

만금이는 두 동무와 함께 놈들이 손 쓸 사이도 주지 않고 벼락 사격을 퍼부었다. 안심하고 걸어 오던 놈들은 난데 없는 몰사격 바람에 단번에 10 여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놈들이 비로소 전투 준비를 했을 때는 이편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다.

그해 초 겨울 만금이는 유격대 통신 련락을 갔다 돌아 오던 길에 화룡현, 얼어호라는 산밑 동리에서 하루 밤을 머무르게 되였다. 그 때 이 고장에 유격 부대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인민들은 기뻐서 유격대를 환영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이 바로 10월 30일이였다.

기다리던 유격대가 한 30 리 밖에까지 왔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눈은 내리여 반 자가 넘게 쌓였고 해는 방금 서산에 지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치기 시작하였다.

이때였다.

난데 없는 총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 왔다. 그러자 뒤'이어 콩볶듯 한 총 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려 왔다. 왜놈의 《토벌대》가 습격해 왔던 것이다.

이때는 이곳 반일 자위대가 딴 데로 공작을 나가고 아직 돌아 오지 않은 때였다. 놈들은 바로 이 틈을 타서 습격해 왔던 것이다.

왜적들은 동리 안으로 처들어 오고 있었다. 부락에 남아 있던 녀인들은 급히 사방으로 피해 달아났다. 뜻밖의 습격을 당한 그들은 저마다 산산이 흩어져 혹은 뒤'산으로, 혹은 골짜기로, 앞벌로 피신하였다.

그 때 만금이는 음식 준비에 분주한 옆집 아주머니의 두 살난 애기를 업고 있었다.

뜻하지 않았던 총 소리에 집을 뛰쳐 나온 만금이는 뒤'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벌써 앞서 가는 사람도 있고 뒤달려 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였다. 막 산으로 달려 올라 가다가 문득 앞을 보니 바로 눈 앞에 긴 칼을 빼 든 왜놈이 서 있지 않는가! 순간 만금이는 눈 앞이 아찔해졌다.

만금이는 더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 갈 수도 없었다. 만금이는 가던 대로 그냥 앞으로 내 달을 수 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이때 놈들은 만금이가 하두 어리게 보였던지 저만치 떨어져 있는 녀인들에게로 달려 갔다.

이때 만금이는 급히 산으로 달려 올라 갔다. 그러자 거기에는 놈들의 짐을 지고 끌려 온 사람 백 여 명이 혼이 빠져 눈 속에 엎드리여 있었다.

만금이는 다시 뛰여 큰 나무를 안고 돌아 섰다. 얼마쯤 뛰여 간 후 놈들이 쫓아 오는 기색이 없게 되였을 때에야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임을 알았다. 그래도 발 시린 줄을 몰랐고 또 어쩐셈인지 등에 업힌 두 살난 어린애도 울지 않았다.

날씨는 점점 어두워 갔다. 만금이는 유격대를 찾아 가기로 결심했다. 30리 길이라고는 하지만 울창한 나무 숲 길을 걸어야 했다.

그 때 열 다섯 살이던 만금이는 아이를 업고 무릎까지 치는 눈속길을 맨발로 걸었다.

부락에서는 아직도 왜놈들의 학살이 계속 되고 있었다.

놈들은 보이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 심지어 간신히 맨발로 집을 빠져 나온 여섯 살에 난 어린 아이가 나무 밑 눈 없는 데를 찾아 가서 서로 끼여 안고 떨며 우는 것을 왜놈들은 무참히도 총으로 쏘아 죽였다.

이날 30 여명이 살던 이 부락에 살아 남은 사람은 겨우 만금이와 그에게 업힌 아이 그리고 아주머니 한 사람 합해서 세 사람 뿐이였다. 그나마도 아주머니는 부상을 당해 있었다.

무성한 나무 숲 눈'길을 걸어서 만금이가 유격대를 찾았을 때는 밤 아홉시가 되였다. 맨발로 우는 아이를 업고 온 만금이를 본 유격대들은 기가 막혀 이를 갈았다. 그러나 왜놈들은 이미 돌아 갔을 것이여서 놈들을 치러 갈 수도 없었다.

그들은 만금이의 언 발을 치료해 주고 우는 아이에게 먹은 것을 주어 따뜻이 보호했다.

이날 만금이는 조국을 찾기 위하여 싸우다가 무참히 희생된 이들, 동포들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거듭 맹세하면서 자기 대오를 찾아 떠났다.

그 후 만금이는 온갖 곤난과 애로를 물리치면서 오직 일제 원쑤를 치는 싸움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이렇듯 투쟁을 계속하여 오던 중 1945 년 8월 15일 해방의 명절을 맞이하였다. 만금이는 드디여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 오게 되였다.

조선에 돌아 온 만금이는 단천군에서 녀맹 사업을 하다가 평양 학원에서 공작을 하던 중 불행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빨찌산의 딸로서, 유격대로서 우리의 김 일성 원수님을 받들고 조국을 위하여 싸워 온 정 경복 동지의 일생은 너무도 짧게 끝났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동단원이였던 정 경복 동지의 불타는 혁명 정신은 영원히 우리들,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 살아 있을 것이다.

☆

☆ ☆

14년 전

글 박응호

그림 림영환

내가 조 성자 동무를 알게 된 것은 13년 전 청진에서였다. 그때만 해도 성자 동무는 갈래머리를 한 14 세의 초중 2학년생이였다.

그 후 우리는 서신으로 몇번 련계를 가졌으나 1950년 전쟁이 일어난 후로는 영영 소식을 모르고 지냈다.

나는 해마다 찾아 오는 8. 15 해방의 명절을 맞을 때면 가끔 성자 동무를 생각하군 한다.

그랬던 것이 얼마 전 나는 성자 동무를 림상 병원에서 만났었다. 13년만에…

그는 지금 착실한 의사가 되여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지금 일리나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오?》

나는 그를 만나자 바람으로 이런 것부터 물었다.

《건강하셔요. 참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 왔어요…》

성자 동무는 활기를 띠고 품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두 아들을 한판에 앉히고 찍은 가족 사진이였다.

성자 동무는 묻기도 전에 큰 아이는 꼴랴이고 작은 아이는 싸샤이며 그 옆의 분은 공장 기사장인 일리나 아주머니의 남편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마치도 자기 가족들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없었다. 나는 더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성자 동무와 일리나 아주머니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정은 그 후 더욱 두터워졌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자 동무와 일리나 아주머니 사이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 × ×

1945년 8월 10일이였다.

라진에서 얼마 떨어진 어느 촌 앞을 지나는 넓은 행길은 아침부터 피난민들로 물'결쳤다.

그날은 몹시 무더운 날이였다.

뽀얀 먼지 구름으로 휘덮인 행길로는 가장집물들을 가뜩 실은 마차와 손수레, 그리고 보따리들을 이고 진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가고 있었다. 땀투성이가 된 사람들의 얼굴은 먼지로 얼룩이 져서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이 사람들의 물'결 속에 열두살난 성자도 끼워 있었다. 그는 소작살이를 해 오던 아버지의 손목에 끌려 힘 없는 걸음으로 라진을 향해 걸어 가고 있었다. 뜨거운 지열에 확확 떠풍기는 먼지는 사람들을 금시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러지 않아도 벌써 몇몇 아이들과 늙은이들은 길'가에 쓰러졌다.

성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이를 앙다물고 걸었다. 가까운 곳에서 쿵쿵 포 소리가 들려 오고 여기 저기에서는 자지러지듯 울부짖는 기관총 사격 소리도 들려 왔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흠칫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였다.

그러자 별안간 피난민들이 걸어 가는 쪽에서 왜병들이 나타나더니 이쪽을 향해 사격을 하기 시작하였다. 앞머리에 섰던 몇몇 사람들이 쓰러졌다. 사람들은 벌둥지를 쑤셔 놓은듯 산지사방으로 욱하니 흩어졌다. 순식간에 행길에는 아우성 소리, 총 소리로 대혼란이 일어났다.

성자는 질겁을 하며 아버지 품에 기여들었다. 아버지는 치를 떠는 성자를 자기 품에 꼭 껴 안으며 웨치듯 말했다.

《성자야! 무서워 말아. 지금 쏘련 군대들이 원쑤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 내기 위해 진격해 오고 있단다. 두고 봐! 이제 우리는 소원 대로 우리 세상에서 잘 살게 될거야!》

아버지는 금시 만세라도 부를 듯이 흥분되여 있었다.

그러나 성자는 아버지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잘 살 수 있다는 말에 저으기 마음이 놓였다.

포탄 터지는 소리며 소총 소리는 더욱 지척에서 들려 왔다.

그러자 평시에 그렇게도 뻐기고 야단치던 왜놈 군대들이 어쩔 바를 몰라하며 쫓기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흩어져 도망치는 피난민들 속으로 뚫고 들어 왔다. 그리고는 퇴각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죽였다. 피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갈팡질팡하며 아우성쳤다. 성자는 사람들의 물'결에 밀려 그만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졌다.

《아버지!》, 《성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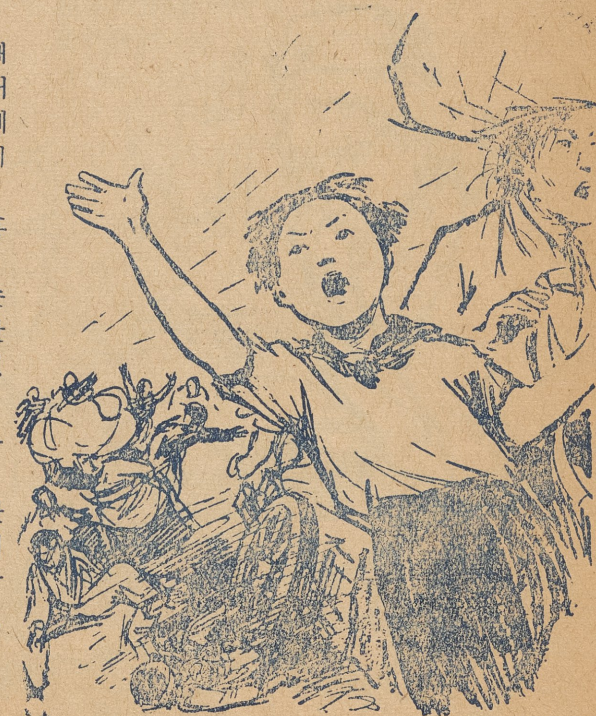
아버지와 딸의 고함 소리는 아우성 소리에 삼키워 버리고 말았다.

왜놈들은 자기들의 퇴각이 지체되자 이제는 기총사격으로 사람들을 쓰러 눕혔다.

아버지를 찾아 울며불며 야단치는 성자는 그만 왼쪽 다리에 총알을 맞아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성자는 알 수 없었으나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어스럼한 저녁 무렵이였다.

사방은 고요하고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성자는 포근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이런 데 와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사방을 휘 살펴 보았다. 성자는 깜짝 놀랐다. 바로 성자 곁에는 새하얀 위생복을 입은 쏘련군 녀자 장교가 성자의 얼굴을 들여다 보고 있지 않는가? 그의 푸른 눈에는 걱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성자는 그만 와락 일어나려고 하였다.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자 녀자 장교는 얼른 성자의 두 어깨를 살며시 누르며 예쁜 얼굴 가득히 웃음을 떠우고 근심 말고 자라는 시늉을 하였다.

잡자기 몸을 움직인 데서부터 한쪽 다리가 몹시 아파났다. 성자는 그제야 자기의 한쪽 다리가 부상을 당했음을 알았다.

성자가 정신을 차리자 어느 사이엔지 그의 둘레에는 난생 처음 보는 쏘련 군대들이 빙 둘러 서서 걱정 어린 얼굴로 부상당한 성자를 지켜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뭐라 녀자 장교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묻는 것이였다. 얼마 후 성자는 더는 무섭지가 않았다. 자기를 지켜 보는 쏘련 군대들의 얼굴에는 마치 자기 딸의 불행을 걱정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정이 어려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후에 안 일이지만 피투성이가 되여 행길에 쓰러져 있는 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쏘련군 군의 일리나 아주머니였다. 그는 곧 성자의 부상당한 한쪽 다리를 응급처치하고 나서 그를 곧 야전 병원으로 데려 왔던 것이다.

일리나 아주머니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치료로 성자의 상처는 점차완쾌되여 갔다. 그러나 아버지를 잃은 성자의 마음은 더욱더 서러워만졌다. 그는 아버지를 못내 그리워하다가는 눈물을 짓군 하였다.

언젠가 일리나 아주머니는 아버지 생각에 우는 성자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성자 울지 말아, 우리가 온 것은 이 땅에 서리였던 눈물과 불행 대신 행복과 웃음을 찾아 주기 위한 때문이야. 아버지는 꼭 만난다. 이제 너는 영원히 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거야!》

성자는 그시는 마음이 진정되였어도 다음 날엔 또 아버지를 생각하군 하였다. 날마다 성자의 침대 곁에는 쏘련군 부상병들이며 간호병들이 가져 온 선물들이 쌓여 있군 하였다.

성자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서러워하면 일리나 아주머니는 꼭두각씨를 손'가락에 끼워 우스개를 피웠다. 그것이 어찌도 우스웠던지 성자는 가끔 눈물어린 얼굴에 웃음을 짓군 하였다.

성자는 두달 만에는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성자와 일리나 아주머니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정이 맺어졌다. 이것은 어머니와 딸의 사랑이나 다름 없었다.

일리나 아주머니는 불행한 사람이였다. 고향인 민쓰크에 독일놈들이 들어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들은 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되였었다.

언젠가 일리나 아주머니는 성자에게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 주며 몰래 눈물을 지은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일리나 아주머니와 성자와의 사이를 더욱 두터운

사랑의 정으로 얽히게 하였다.

석달을 같은 방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사이에 성자는 일리나 아주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따르며 사랑하게 되였다.

아버지를 생각하다 뻬치카 옆에서 잠이 들 때면 병원에서 돌아 온 일리나 아주머니는 조심히 성자를 안아다 침대에 눕혀 주군 하였다. 그리고는 때로 나직히 자장가도 불러주는 것이였다. 그럴 때면 성자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달콤한 심정으로 포근히 잠이 들군 하였다.

그 후 아주머니네 부대는 청진으로 이동되였다. 이때에 성자도 아주머니를 따라 같이 청진으로 나왔다.

성자는 해방된 거리를 거닐면서 일리나 아주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악독한 일제의 쇠사슬로부터 해방된 거리거리에는 가는 곳 마다 높은 웃음 소리가 들려왔고 행복이 꽃피여 나고 있었다.

거리에는 그전 날 조선 사람을 못살게 굴던 칼을 찬 순사놈들 대신에 가는 곳마다에는 조선 인민을 해방시켜 준 쏘련 군대들과 조선 아이들이 한데 섞여 웃음판을 벌려 놓고 있었으며 그전 날에는 헐벗고 굶주리던 로동자들이 오늘은 기를 펴고 공장으로 가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저저마다 책보를 옆에 끼고 노래 부르며 학교로 가고 있었다.

학교! 얼마나 다니고 싶던 곳인가! 돈 없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 문 앞에도 가 보지 못하던 그 곳—그것이 오늘은 모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자기들의 학교로 되지 않았는가!

성자는 빨리 아버지를 만나서 그애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었다.

1945년 11월 어느날 오후였다.

성자는 매일 하는 것처럼 이날도 일리나 아주머니가 배워 주는 로어 교과서를 펼쳐 놓고 전날'밤 배운 것에 대한 복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때에 일리나 아주머니가 차를 타고 돌아 왔다.

(아직 병원 근무는 끝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 성자는 공부를 하다 말고 아주머니를 마중 나갔다.

일리나 아주머니는 성자를 보기가 바쁘게 그를 안듯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 와 그에게 새 완피스를 입혔다. 성자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성자가 아무리 물어도 일리나 아주머니는 그저 벙글벙글 웃으며 서둘기만 했다.

성자가 아주머니와 함께 차에 올랐을 때 치치꼬브라는 익살'군 운전수는 눈을 찡긋거리며 성자에게 뜻 있는 눈 웃음을 보냈다.

이윽고 차는 뜻밖에도 청진에서 제일 큰 학교인 제1 인민 학교 현관 앞에 뚝 멎었다.

성자는 그제야 아주머니가 기뻐하던 원인을 알았다.

학교에서는 벌써 련락을 받고 있은 모양으로 성자를 곧 교실로 데려 갔다.

이리하여 성자는 그처럼 부럽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였다.

저녁이면 일리나 아주머니는 성자의 학습을 도와 주기 위해 통역원 아저씨를 초빙해 오군 하였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하는 성자의 모습을 사랑과 기쁨에 찬 눈으로 바라 보군 하였다.

성자의 학습 열의는 눈에 띄게 높아만 갔다. 원래 총명한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우리 나라 글은 물론 쉬운 로어까지도 제법 읽고 쓰게 되였다.

어느날 학습이 끝났을 때였다. 아주머니는 성자를 자기 품에 껴 안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귀여운 성자! 성자는 이제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겠어?》

《전 아주머니처럼 환자들의 병을 고쳐 주는 의사가 되겠어요…》

성자는 좀 수집어하면서도 서슴 없이 말했다.

《하라쇼, 희망이란 아름답고 귀중한거지! 꼭 네 희망이 이룩되기를 바란다. 성자는 반드시 인민을 위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어!》 일리나 아주머니는 짬만 있으면 성자를 데리고 해방된 거리를 거닐기를 좋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의 장래에 대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다.

성자는 그때마다 훌륭한 새 나라의 주

인이 될 것을 굳게 결심하군 하였다.

성자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지 한 달이 되는 12월 어느 날이였다.

그날은 음악 시간이였다. 웬일인지 교장 선생이 들어 오며 성자를 불러 냈다.

《성자야 기뻐해라! 너의 아버지를 찾았다.…》

기쁨에 찬 교장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언제 와 있었던지 일리나 아주머니가 성자를 그러안으며 이마이며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이였다. 이때의 아주머니의 푸른 두 눈에는 어딘가 서글픈 기색이 스쳐 지나는 것을 성자는 보지 못했다.

일리나 아주머니는 그동안 성자의 아버지를 찾아 주기 위하여 성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신문을 통하여서와 그리고 쏘련 군대를 통하여 알아 보았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바로 그날 어느 쏘련 군대 아저씨로부터 성자의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받았던 것이다.

그날로 성자는 그처럼 그립던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나 성자는 또한 그날 저녁으로 생명의 은인인 일리나 아주머니와 헤여지지 않으면 안 되였다.

막상 헤여지자니 성자는 울음부터 앞섰다. 그는 와락 일리나 아주머니의 목을 그러안고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썼지만 일리나 아주머니는 끝내 성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그는 자기 목을 그러안은 눈물에 젖은 성자의 얼굴에 오래 오래 자기의 뺨을 비비며 리별을 애석해 하였다.

그 후 일리나 아주머니는 짬만 있으면 성자를 찾아 왔고 그의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마련하여 주군 하였다.

다음 해인 1946년 일리나 아주머니는 소환되여 고국으로 돌아 갔다. 그 후 성자는 일리나 아주머니가, 고향인 민쓰크에서 병원에 근무한다는 소식을 받았다.

비록 성자와 일리나 아주머니는 수천 수만리 떨어졌어도 그들 사이에 맺어진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정은 위대한 쏘련 인민과 조선 인민이 그렇듯이 영원할 것이다.

성자는 그 후 자기의 희망 대로 초중, 고중을 마치고 함흥 의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였던 것이다.

× ×

이날 조 성자 동무는 8. 15 해방 열 네 돐을 맞으면서 일리나 아주머니께 보내는 편지를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씌여 있었다.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은인인 일리나 아주머니!

나의 행복한 생활의 시작은 바로 아주머니의 따뜻한 품 속에서부터 시작 되였습니다.…》

쏘련 삐오네르들의 우등'불 모임

김 봉 일

나는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자뽀로쥐예라는 큰 도시를 찾은 일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삐오네르들의 생활을 약 2 주일간 견학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6월 16일 저녁에 있은 소년단원들의 우등'불 모임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등'불 모임의 장소는 자뽀로쥐예 시 중심에 있는 공원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공원 중심에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독일 파시스트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영웅적으로 전사한 쏘베트 군대 영웅들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우등'불 준비를 한 둘레에는 삐오네르들이 빼곡히 둘러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모임에 초대된 로 혁명가, 로력 영웅, 기타 주 간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등'불 준비는 대략 다음과 같이 되여 있었습니다. 오각별이 만들어 졌는데 그 중심은 깊이 약 50 쎈치메터 가량 파 헤쳐져 있었습니다. 중심에는 긴 장'대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장'대는 불'길이 곧추 올라 가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장'대를 중심하여 파 헤친 데는 장작이 놓여 있었고 다음 장'대를 중심하여 섶나무들을 (잎사귀가 없는 것들) 세워 놓았습니다. 별의 매 각에는 모래를 두드러지게 쌓아 놓았습니다.

나무 우에는 솜으로 《훌륭히 불타라》라고 새겨 놓았습니다. 우등'불을 준비한 것을 우에서 보면 모래로 만든 별 우에 나무를 세운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삐오네르 휘장을 상징한 것이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우등'불 모임이 끝나면 떨어진 불찌들을 구뎅이에 넣고 모래로 파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 조심을 하는 데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 되였습나다.

정각 9시에 우등'불 모임이 시작되였습니다. 사회자는 우등'불 모임의 시작을 알리였습니다. 그는 오늘 모임에 로 혁명가와 로력 영웅들이 초대되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명예 삐오넬 칭호》를 수여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열렬한 환호로써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소년단원들이 뛰여가 그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여 드렸습니다. 그들은 몹시도 이를 기쁘게 생각했으며 그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날은 로 혁명가들도 소년단원이 되여서 소년들과 같이 행동하며 같이 즐기였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매고 시내를 돌아 다니군 하였습니다.

다음 로 혁명가의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혁명가는 연설에서 어떻게 혁명가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왔는가를 이야기 했으며 오늘 삐오네르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싸웠는가를 말하면서 삐오네르들도 조국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연설은 삐오네르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콤청원 언니가 나와 시 랑송을 하였는데 그것은 이날 우등'불 모임을 축하하는 시였습니다.

다음에 삐오네르들의 합창, 시 랑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답사를 대신한 것이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우둥'불에 불을 지르는 순서가 되였습니다. 명예 소년단원 칭호를 받은 할아버지 한분이 나오시고 학업과 삐오네르 사업에서 모범인 대표로 뽑히운 삐오네르 4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각기 나무 끝에 기름 천을 단 불 방맹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로 혁명가가 자기 불방맹이에 불을 달았습니다. 삐오네르들은 로 혁명가의 불 방맹이에서 자기 불 방맹이에 불을 이어 달았습니다. 이것은 혁명 위업을 훌륭히 계승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인 방맹이를 들고 5명은 각기 5각별의 매 각에 가 섰습니다. 처음 로 혁명가가 불을 우둥'불에 달았습니다. 뒤'이어 4 명이 동시에 달았습니다. 불'길은 일시에 하늘 높이 솟아 올랐습니다.

우둥'불은 유달리 캄캄한 (우크라이나의 여름은 아주 캄캄하다) 밤 하늘을 붉게 물드렸습니다.

불을 부치자 애국가가 장엄히 울렸습니다. 삐오넬들은 주악이 끝날때까지 삐오네르 경례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주악이 끝나자 손을 내리였습니다. 사회자가 삐오네르 구호를 부르자 일제히 《항상 준비》하고 웨쳤습니다.

다음에는 공청원 형님 누나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춤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삐오네르들의 우둥'불 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족 무용을 비롯하여 아주 재미 있고 훌륭한 춤과 노래가 진행 되였습니다. 다음에는 삐오네르들이 준비한 춤과 노래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점차 삐오네르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친선의 춤을 흥겨웁게 추었습니다.

우리도 삐오네르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우둥'불은 더욱 활활 타 올랐으며 삐오네르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스러운 웃음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우둥'불 모임은 두 시간 후에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날에 있은 모임을 영원히 잊지 않으며 모두가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하여 학습과 로동에서 더욱 모범이 될 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림소설 《행복》의 주인공 김유순의 편지

소년단 6호에 게재된 그림 소설 《행복》의 주인공 김 유순은 자기에게 보내 준 수많은 소년단원들의 편지에 대한 회답을 본 편집부에 보내 왔다.

아래에 그 편지와 사진을 소개한다.

(편집부)

☆ ☆ ☆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나에게 보내 준 정성어린 편지들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여러 소년단원들의 편지를 받아 읽을 때마다 나의 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행복에 뒤설레군 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나를 이렇게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놈들과 싸우다 돌아 가신 부모들의 뒤를 잇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나의 본신 임무인 학습과 로동 그리고 민청 생활에 열성껏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 소년단원들의 정성어린 편지를 받은 나는 더욱 큰 결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 나는 동무들의 부탁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공화국의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을 동무들과 약속합니다.

동무들의 학습과 소년단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평남 남포 유자녀학원

고급반 1년

김 유 순

유쾌한 항해

—강원도 통천군 통천 중학교 대 6 분단에서—

글 권 기준

그림 최 순천

아침이다.

바다'물이 밀려 왔다 밀려 가는 백사장으로 두 아이가 걸어 가고 있었다. 한 아이는 듬직한 몸매에 키가 후리후리하고 다른 아이는 그보다 작으면서 어딘가 나약해 보였다. 이들은 무엇인가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걸어 가고 있었다. 큰 아이는 일부였고 다른 작은 아이는 순기였다.

《일부야! 두고 봐! 난 오늘 선장이 되여 해도를 보며 이렇게 조타를 돌리며 배를 몰테야,》 하고 키가 작은 순기가 신이 나서 조타 돌리는 시늉까지 하면서 종알거렸다. 그러나 일부는 그저 말 없이 흘낏 순기를 돌아 보고는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야! 넌 내 솜씨를 믿지 않는구나!》

《넌 목선도 저을 줄 모르면서 뽐 내긴!》

일부는 그냥 웃으며 짤막하니 이렇게 대답했다.

《문제 없어, 그까짓 목선이나 잘 몰면 뭘해, 바다'사람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큰 배나 잘 타면 되는거야.》

《또 우쭐거린다. 넌 언제나 말로는 바다'사람이 다 된 것 처럼 말하지.》

사실 이 두 아이들은 모두가 바다를 사랑하는 해양 크루쇼크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르게 바다를 사랑하고 있었다. 일부는 벌써 어딘가 바다'사람다운 믿음직한 데가 있었다. 거무스레한 얼굴과 억세게 보이는 근육, 쩍 벌어진 앞가슴—이 모든 것은 그가 해양 크루쇼크에서 열심히 수영도 하고 배도 타 보는 훈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순기는 바다는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훈련이 있을 때면 빠지기가 일수였고 혹 훈련에 참가한다 해도 물 속에는 들어 가지 않고 바깥에서 어물거리며 바다에 관한 시를 읊거나 책만 읽었다. 이처럼 순기는 바다는 사랑하나 실지 바다 생활에서는 서먹한 사이였다.

얼마 후 이들은 분단 아이들과 함께 저예망선 180 호에 올랐다.

바다'바람에 그슬린 진한 구리'빛 얼굴에 무뚝뚝하면서도 어딘가 너그러워 보이는 저예망선 180 호 선장 손 영호 아저씨가 아이들을 반가히 맞아 주었다.

선장 아저씨가 출발 조종대를 잡아 당긴다. 배는 천천히 부두'가를 떨어져 동남방으로 배'머리를 잡은후 먼 바다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수평선 저 멀리 흰 구름 떠 가며
두둥실 우리 마음 싣고만 가네…

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는 파도를 타

고 멀리멀리로 퍼져간다. 배가 점점 륙지에서 멀어지자 신나게 부르던 노래 소리도, 종알거리던 말소리도 점점 적어 지고 마지막엔 자주 들리는 웃음 소리 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큰 파도가 밀려 올 때마다 배'머리가 들리웠다 떨어진다. 그때마다 배 우의 아이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얼굴을 찡그리는 동무, 얼굴이 새'하애지는 동무, 하품을 하는 동무들이 점점 늘어갔다.

그러나 일부는 배에 오르자부터 오히려 활기를 띠였다. 그는 어로공 아저씨들의 그물 드리우는 일'손을 돕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로공 아저씨들을 돕고 있던 일부는 흘깃 배'전에 머리를 박은 체 두 손을 입에 대고 괴로워하는 순기를 바라 보았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 갔다.

《너 왜 그러니 멀미가 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메스꺼우면 저기 선원실에 가서 좀 누워라.》하며 순기를 일궈 세웠다. 순기는 하늘이 빙빙 돌고 금시 토할것만 같았으나 배타기 전에 한 말도 있고 해서 우정 태연해 보이려고 애를 썼다.

《아니 일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머리가 좀…》

일부는 웃으며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싫다는 순기를 억지로 선원실에 데려다 눕혔다. 그가 선장실 앞을 지날 때 선장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일부야 봐라! 여기가 정치망 어장이다. 이제부터 어로 작업이 시작된다.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가 한 번 봐라.》하면서 그는 배를 천천히 멈춰 세우고 그물을 걷우라고 신호했다.

어로공 아저씨들은 재빠른 솜씨로 쪽배에 옮겨 타서 그물을 걷었다. 일부도 어로공 아저씨들께로 달려 가서 그물 걷는 일을 도왔다.

…그물을 당겨라 어여차 어여차…

어로공 아저씨들은 노래도 흥겹게 그물을 당긴다. 파도는 쪽배를 몹시 뒤흔들었다. 일부의 이마에도, 아저씨들의 이마에도 구슬땀이 맺혔다. 말 그대로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만에 그물이 올라 왔다. 터질듯이 고기로 가득찼다. 이윽고 어로공들은 펄펄 뛰는 고등어, 가재미, 공치들을 갑판 우에 퍼 올린다. 아이들은 《와—》 함성을 올리며 방금 잡은 고기를 제가끔 한 마리씩 집어 들고 좋아서들 어쩔 줄 몰라한다. 멀미하던 아이들의 새하얀 얼굴에도 기쁜 웃음이 퍼졌다.

산'더미처럼 쌓여진 고기를 본 아이들은 한입으로 《야—많이두 잡았구나》

《우리 나라 바다는 보물 바다야!》 등등 한마디씩 한다.

저예망선 180 호는 풍어기를 높이 올렸다. 배가 잠시 금란항에 머물었을 때 선장 아저씨와의 상봉 모임이 있었다.

선장 아저씨는 둘러 앉은 아이들을 살펴 보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16살 때부터 일부 아버지랑 함께 배를 타기 시작했다.》하며 일부를 뜻 있게 바라 보며 일제 시기 선주놈들에게 모진 착취와 학대를 받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주인 노릇을 하던 당시 조선 사람들은 참으로 눈물 겨운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가난한 어민들은 그 풍부한 바다의 보물도 마음대로 손댈 수 없었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였는가? 이 넓고 넓은 보물로 가득찬 바다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주인인 것이다.》

감격에 찬 어조로 여기까지 말한 아저씨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휘둘러 보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이들도 감격에 찬 얼굴로 검푸른 바다를 바라 보았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들은 바다의 주인이다. 그러자면 용감한 바다'사람이 되여야 한다. 용감한 바다'사람은 허공에 들떠서 말로만 바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바다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 중엔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는것 같구나.》

순기를 비롯한 멀미를 하던 아이들은 모두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선장 아저씨는 뜻 있는 눈으로 순기며 몇몇 아이들을 바라 보며 말을 계속했다.

《중요한 것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설사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몸이 바다에 견디지 못한다면 그는 바다 사람이 될 수 없다. 원수님이 장진리에 오셔서 《**학생들은 미역도 감고 헤염도 치며 뽀트도 타고 체육 스포츠가가 되여 바다를 무서워 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 되여 바다를 정복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옳은 말씀이지, 때문에 원수님 말씀처럼 몸을 꾸준히 단련하고 바다와 친숙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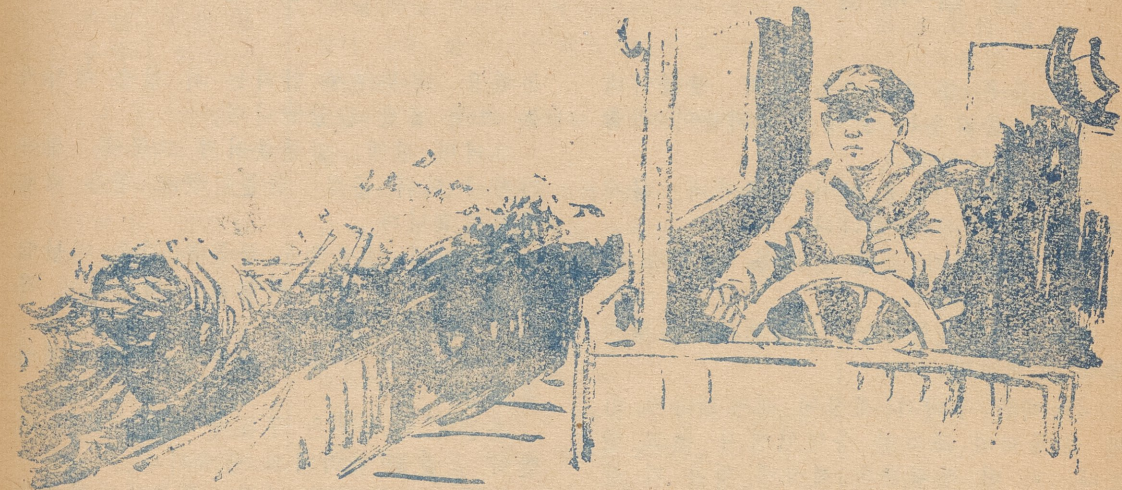
(이럴 줄 알았더면 해양 훈련을 꾸준히 했을걸… 해양 훈련에서 꾸준하던 일부는 오늘 얼마나 름름한가!)

이렇게 생각한 순기는 지난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말로써가 아니라 몸으로 바다를 사랑하고 친숙해 지도록 열심히 해양 훈련에 참가할 것을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배는 다시 떠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선장실에 가서

《아저씨 조타 한 번 잡아 볼 수 없어요?》 하고 아저씨 곁에 바싹 다가 앉았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배를 몰아 볼 셈이냐? 에따 해 봐라.》

하고 일부에게 조타를 내맡기면서 해도를 보고 타침판에 맞춰 배를 어떻게 몰아야 한다는 것을 곁에 앉아서 가르쳐 주었다. 조타를 잡은 일부는 정말 선장이 된 것만 같았다.

일부는 태산같은 파도를 헤치며 풍어기 높이 달고 바다의 보물을 가득 실은 배를 몰고 있는 래일의 자기 모습을 눈 앞에 그려봤다. 일부는 원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일생을 이 바다와 함께 살 것을 굳게 다지며 조타를 힘껏 틀어 쥐였다.

어느사이엔가 순기가 그의 옆에 와서 부러운 눈치로 일부를 바라 본다.

일부는 싱긋 웃으며 순기에게도 조타를 잡을 기회를 주었다.

어느덧 배는 부두 가까이 왔다. 고기를 기다리는 가공반 누나들이 풍어기 날리고 돌아 오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든다.

일부와 순기는 유쾌한 항해를 즐겨 더욱 높이 노래를 불렀다.

너는 너는 겁을 모르는 동해 갈매기
나는 나는 씩씩한 바다의 아들…

동화

돌돌이네 형제들

글 김재원 그림 현재덕

어느 깊은 산 속 바위 밑에 돌돌이네 형제라고 불리우는 물'방울 형제들이 의좋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감에 따라 돌돌이네 형제들은 점점 늘어 갔습니다.

그들은 식구가 늘면 늘 수록 더 의가 좋아만 졌습니다.

어느날 맏돌돌이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세상에 태여났다가 이런 산'골짜기 조그만 웅뎅이에서 늙고 말겠나. 한 번 사람들의 세상에 찾아 가 살아 보는게 어때?》

돌돌이네 형제들은 늘 산'새 아저씨들에게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산'새들은 늘 멀리 인가들에 날아 갔다 오군 해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늘까지 꾹 닿았다는 굴뚝 이야기며 논판을 부룽부룽 달리는 쇠 짐승 이야기는 모두 옛말 같았습니다.

그러던 판에 맏돌돌이가 그곳에 찾아 가자니 여러 동생 돌돌이들도 물론 대찬성이였습니다.

돌돌이네 형제들은 돌돌돌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파란 하늘을 바라 보며 가기가 참 좋았습니다.

솜 같은 흰 구름이 하늘에 동동 떠서 흘렀습니다.

돌돌이 형제들은 구름과 내기 하듯 더 빨리 돌돌돌 달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동안 흘러 가던 돌돌이네형제들은 좀 큰 개울에 뛰어섰습니다.

거기서 낯선 물 동무들과 만났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서 온다는 물 동무들이였습니다. 그들은 곧 형제가 되였습니다. 개울은 점점 더 활기를 띠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부쩍 세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껄껄껄…》 웃음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눈들이 말똥말똥해서 물 형제들은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슭에 서 있는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까치 한 마리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개울을 굽어 보고 있질 않겠습니까.

돌돌이네 형제들은 발끈 성이 났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군데 우릴 보고 그렇게 비웃고 있소?》

까치는 점점 더 점잔을 피우면서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호호호… 우스우니까 웃지 왜? 맹물'방울들이 모인 녀희들이 대체 무슨 일을 치룬다고 그렇게 큰 소릴 치니? 촌뜨기 맹물'방울들아 그저 개울을 따라 흐르는 대로 잠자코 흐르기나 할게지 무슨 좋은 일이니 무어니 하느냐 말야.》

그러면서 까치는 제자랑을 한바탕 늘여 놓는 것이였어요.

《이봐! 까치님을 좀 보란 말야. 에헴! 난 세상 구경을 골고루 다 하고 돌아 다닌단 말야. 사람들이 사는 데도 맘대로 드나 들며 구경을 한단 말야.》

까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제 자랑처럼 한바탕 늘여 놓았습니다. 처음은 까치가 거드름을 피우는 바람에 성들이 났던 돌돌이 형제들도 사람의 세상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재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돌이네 형제들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찾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졌습니다.

돌돌이네 형제들은 또 몇몇 개울과 합쳐 자그마한 시내를 이루게 되였습니다.

물 형제들 가슴 마다엔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그런데 한참 싱싱 달리던 돌돌이 형제들은 서로 머리를 맞찧으며 그자리에 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야야! 이거 왜 이래, 왜 말뚝 처럼 우뚝 서느냐 말야 못난 것들….》

《글쎄 앞에서들 잔뜩 멎고 있으니 나갈 수가 있나.》

물 형제들은 한참이나 웅성거렸습니다 동'둑으로는 이따금 빨간 넥타이를 펄럭이며 삽을 멘 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별로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홍 저 아이들이 동'둑 막아 놓고 무슨 장난을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물 형제들은 소년들이 동'둑에 나타날 때마다 눈을 흘기군 했습니다.

마치 그 소년이 자기들 신세를 망쳐 주기나 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때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소년들이 동'둑

우리 학교 《록화 근위대》 원들은 1천 여 평방메터의 식물원에다가 무궁화, 란초, 홍초, 국화류, 베고니야 등 우리 나라에 있는 화초, 약초 뿐만 아니라 열대 지방의 식물을 포함한 200 여 종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주위에 100 그루의 사과 나무, 복숭아 나무, 살구 나무 등도 심었고 포도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 정보에 달하는 소년단 보호림도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또는 공부가 끝나면 제각기 자기 맡은 나무에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줍니다.

오라지 않아 우리 학교는 나무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따금 신선한 그늘 속에서 여러가지 모임과 놀음을 조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마을을 푸른 나무로 덮이게 하자》는 이야기도 하여주고 벽보도 만들어 마을의 벽보판에 붙이기도 합니다.

평남도 룡강 애원 중학교

대위원장 박길선

을 분주히 뛰여 돌아 갔습니다.

이윽고 《수문을 열어라!》하는 쟁쟁한 목소리가 울리더니 앞줄에 섰던 물들이 차차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였습니다. 물 형제들은 정신들이 버쩍 들었지요. 《이젠 우릴 보내 줄려나부다》하고 수군거리며 다투어 앞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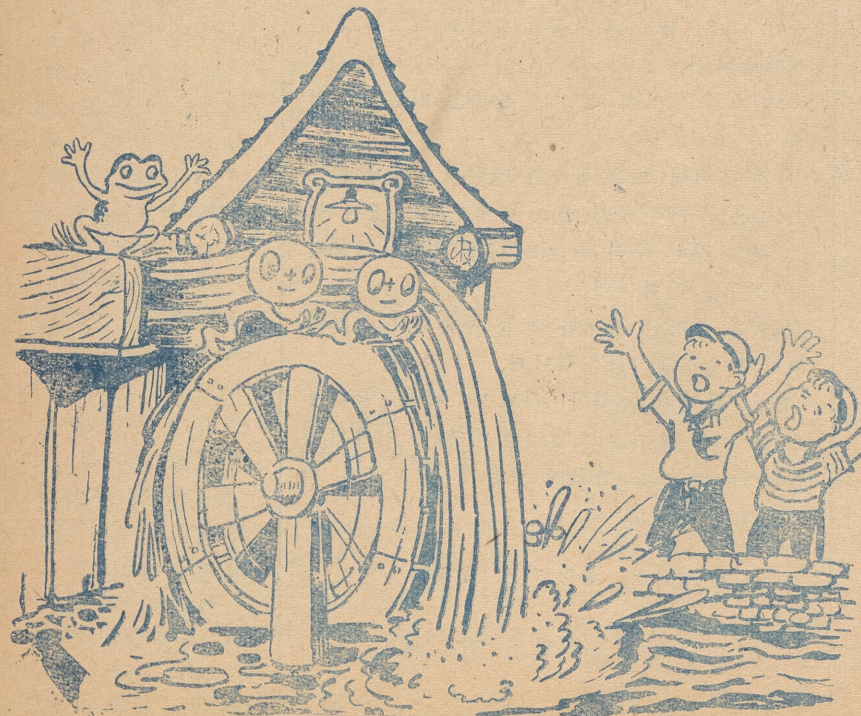
그런데 왜 이리 발들이 잽싸졌습니까. 귀에서 앵 소리가 날만치 빨라졌습니다.

《이크!》하는 맏돌돌이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할 사이 없이 동생 돌돌이들도 《이크!》《이크!》소리를 지르며 높은 곳에서 거꾸로 냅다 쏟아졌습니다.

돌돌이네 형제들은 모두 눈에서 불이 번쩍 튀여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소리로 서로 고아대는데 자신도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의식을 못했습니다.

정신들이 좀 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무슨 큰 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물레 방아가 돌돌이네 형제들이 떨어지는 힘으로 빙글빙글 돌아 가고 있질 않습니까.

《이건 또 뭐야?》

돌돌이네 형제들은 모두 제 정신이 아니였습니다.

그러자 《만세! 성공이다. 우리 꼬마 발전소 만세!》하는 소년들의 웨침 소리가 울렸습니다.

얼마 후에 돌돌이네 형제들에게는 또 새로운 동생들이 생겨 났습니다.

새 동생들은 몸뚱이가 형들과는 딴판이였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인데 얼마나 날쌘지 모릅니다.

돌돌이네 형제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물레 바퀴를 빙빙 자꾸만 돌려 댔습니다. 그런데 동'둑에서 한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러 주며 《참 용하구나 너희들이 기어코 전기를 일구고야 말았구나, 쓸데 없는 장난들을 한다고 욕만 했더니!》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제야 돌돌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전기를 일구고 있다는 것과 그 전기라는게 굉장한 힘장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마을 어구에 늴리리 선 무푸레 나무 우에선 까치 한 마리가 앉아서 머리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여지껏 없던 이상한 것이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번들번들한 것인데 둥그란 주둥이를 벌리고 있질 않겠습니까.

까치는 그것을 톡톡 몇번 쫗아 봤습니다. 그래도 움찍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까치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이때 마침 그 이상한 주둥이에서는 엄청나게 큰 노래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까치는 깜짝 놀라서 딴 나무에 날아 가 앉았습니다. 노래 소리가 멎더니 그 나팔통 속에서는《까치님 왜 그리 놀라세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돌돌이네 동생이예요. 전날 내'가에서 우리 형님들과 만난 일이 있죠. 우리 돌돌이네 형제들은 이런 재간덩이들이 되였답니다. 우리 형제들 재간을 보시려면 좀 있다가 저 놀이터로 구경을 가 보세요.》

까치는 머리가 띵해 졌습니다.

《뭐 저런 조화통이 물'방울들의 힘이라구? 모를 소리야 내가 무엇에 홀렸나 봐?》

까치는 외딴 나무에 올라 가 앉아서 자꾸만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던 까치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자 금방 서산으로 해가 졌는데 동네 놀이터에는 해가 몇개 주른히 매달려 사방을 환히 비쳐 주고 있질 않습니까.

까치는 그리로 조심조심 가 봤습니다. 놀이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맞은 편에는 무슨 하얀 천이 늘이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 기쁜지 벙글벙글 웃고들 있습니다.

《참 이런 하늘 아래 첫 동네에 전기가 생기다니, 인젠 세상에 부러울건 아무 것두 없어, 참 오새 아이들은 용하다니까.》동네 어른들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깜박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늘이운 흰 천에 얼린얼린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왔다 없어졌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꼬마 발전소가 생긴 것을 경축하는 영화 모임이였습니다. 그것을 한참이나 바라 보던 까치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거기엔 먹음직한 음식들이 잔뜩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까치는 저도 모르게 화면으로 와락 내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푸드득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왁짝 웃어대는 바람에 까치는 내'가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내'가에서는 돌돌이네 형제들이 물레 방아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돌돌이네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전날엔 내가 자네들을 깔봤네만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재간덩이가 자네들일세구려.》

그러나 돌돌이네 형제들은 머리를 살래살래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 아신 거애요. 바로 그런 칭찬을 받을 이들은 지금 놀이터에 모인 사람들이애요, 우리를 그런 재간덩이로 만들어 준게 바로 그네들이니까요. 우리 형제들을 재간덩이로 만들어 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린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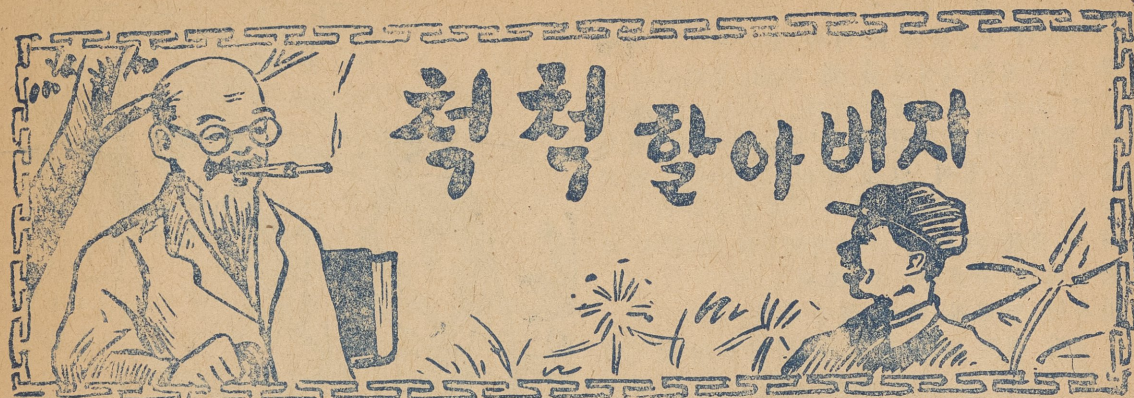
《일 요 일》

아침 늦게 자리에서 일어난 학철이 기지개를 켜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려 한다.

어머니—애, 학철아! 너 세수도 안하고 어디로 가느냐?

학철— 어머니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뭐………

어머니!?

함남 신포 1중학교 안 현영

학생들—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우린 얼마나 기달렸는지 몰라요!

척척 할아버지— 오냐 잘들 있었느냐.

윤길— 할아버지 이번엔 바다에 대한 걸 물어 보겠어요. 그런데 강에서 보다는 바다에서 헤염치기가 퍽 쉬운데 이건 무엇 때문이예요?

척척 할아버지— 그야 바다'물은 강물에서보다 잘 뜨기 때문이지.

윤길— 아이 할아버지두 왜 잘 뜨는가 말이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 응 이를테면 원리를 알려 달란 말이군, 그럼 척척 대답해 주지, 그 보다 먼저 내가 하나 물어 보자. 너희들 대답해 봐라. 바다'물엔 무엇이 포함되였지?

윤길—염분이 많이 포함되여 있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 옳다. 바다'물에는 많은 염분이 포함되여 있다. 바다'물 1리터에는 대략 35 그람 정도 즉 《35프로미리》의 염분이 있단다. 이것은 곧 바다'물이

보통 강물보다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비중이 크다는 것이지.

윤길— 아, 그러면 우리가 물리에서 배운 액체의 성질에서 《액체는 비중이 크면 클 수록 큰 부력 (뜨는 힘)을 가진다》라는 원리인가요?

척척 할아버지— 암 그렇구 말구.

윤길— 그리구 보면 정말 쉬운걸 가지구!

척척 할아버지— 그러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과 결부시켜 학습하라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거다.

순기— 그렇지만 암만해도 리해 안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척척 할아버지— 무엇 말이냐.

순기— 글쎄 바다엔 강물이 계속 흘러 드는데 바다'물 염분은 왜 그냥 그대로인가 말이죠 뭐.

척척 할아버지— 하하 얼핏 생각하면 그런 의문이 생기지!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다. 그런데 강물에도 적은 량이나마 염분은 포함되여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짠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량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바다'물 표면에서 끊임 없는 증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것이야, 이때 물은 수증기로 증발 하지만 염분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바다'물의 염분은 적어지지 않고 극히 적게나마 오히려 많아진다. 그런데 바다엔 얼마나한 염분이 있는지 알겠니…

학생들— ?!

척척 할아버지— 놀라지 말아 바다에 있는 전체 염분을 모두 모아서 지구 우에 골고루 뿌린다면 30 메터 뚜께를 가진 층을 이룰 수 있다.

학생들— 야 정말 굉장하구나.

명철— 할아버지! 나는 어제 뽀트 훈련을 하다가 다가 오는 다른 배로 옮겨 타려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내가 거리를 잘 못 본 것일가요?

척척 할아버지— 그거참 위험한 짓을 했구나, 그것은 거리를 잘 못 본 것이 아니다. 너처럼 배에서 륙지로 뛰여 내리거나 다른 배로 옮겨 탈 때에는 흔히 물에 빠지는 수가 많지.

그건 왜 그런고 하니 배에서 뛸 때 사람은 발에 힘을 주게 되거든 그러니까 배에 받는 힘의 반작용으로 배는 쉽게 뒤로 물러 가게 된다. 그러니 눈짐작보다 뛸 때는 거리가 멀어지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짓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명철— 잘 알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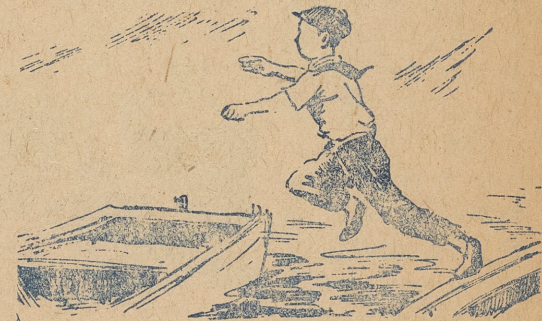
금옥— 할아버지 뽀트를 탈 때 일어서면 배가 몹시 기우뚱거리는 건 왜 그러나요.

척척 할아버지— 요새 너흰 배를 많이 타더니 제법 힘든 것을 묻는구나, 그러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야, 너희들 생각해 봐라, 책상 우에 연필을 하나는 세워 두고 하나는 눕혀 놓고 약간 책상을 흔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금옥— 그야 세워 놓은 연필이 넘어지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 그건 왜 그러냐?

금옥— 건…

척척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그럼 들어 봐라, 모든 물체는 그 중심이 웃 부분에 있을 땐 항상 불안전하며 넘어지기 쉽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배 우에 섰

을 때는 배가 뒤집히기 쉬운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배를 탈 때에는 배가 조금 흔들린다고 덤벼서는 안된다. 배의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아무리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 와도 배는 번져지지 않는다.

인규— 할아버지 바다의 파도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 굽이는 어데서부터 생기는거얘요.

척척 할아버지— 재미 있는 질문인걸!

나는 지난 시기 학습도 잘못 했거니와 소년단 사업에서도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단의 따뜻한 지도와 동무들의 친절한 방조로 지금은 다른 동무들에게 뒤떨어 지지 않게 되였으며 학습에서 더욱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책들도 나를 훌륭히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학교에 만들어진 《임자 없는 도서실》에서 읽고 싶은 책을 가져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 책 읽는 데서 책에 대한 재미를 부치게 되였고 많이 읽을수록 책 내용도 더 잘 알게 되고 속도도 빨라지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나는 한시라도 책을 놓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였습니다. 금년 초부터 읽기 시작한 책들을 보면 《김 일성 원수 령도하의 항일 무장 투쟁》, 《혁명을 위하여》 1, 2부 《어린 갈매기》…등 6월 말까지 84권이나 됩니다.

특히 1930 년대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들의 슬기롭고도 빛나는 혁명 정신은

그전 우리들 눈의 착각이야!

일동— 네?!

척척 할아버지— 너희들 사발에 담겨진 물을 한 번 입으로 불어 봐라, 그럼 사발의 물은 작은 파도를 일으키며 부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사발 안에 든 물은 어느 곳으로도 흐르지 않는다. 바다의 파도 역시 이와 같은 리치이지.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다. 물은 항상 일정한 수면 (수평면)을 유지하며 정지하고 있으려는 힘 (표면장력)이 있다. 그런데 바람이나 혹은 바다'물 속 화산 폭발 기타 등으로 수평면의 안정 상태를 깨뜨리게 되면 물은 원래 대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 작용하여 아래 우로 움직이게 된다. 이 운동이 계속되면 마치 일정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러나 바다'물에는 큰 강물도 있어 항상 움직이고 있다.

명숙— 바다에도 강물이 있다구요!

척척 할아버지— 암 있고 말고 그걸 해류라고 부르는건데 아주 큰 것이 있다.

명숙— 그럼 해류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척척 할아버지—그래 설명해 주지, 해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바다'물의 흐름이다.

첫째 바람에 의한 바다'물의 흐름인데 여기서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무역풍 혹은 기타 조건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다음은 바다'물의 비중의 차이로서도 움직이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우선 바다'물에 포함된 물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중의 차가 생겨 비중이 큰 쪽의 물이 비중이 적은 쪽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온도의 차에 의하여 비중이 달라져서 바다'물이 또한 흐르게 된다.

명숙— 그럼 북극 지방이나 남극 지방의 물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대 지방으로 흐르고 열대 지방의 바다'물은 북극이나 남극으로 흐르는가요?

척척 할아버지— 바로 그렇단다. 물을 끓일 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다'물도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한대 지방으로 흐르는 더운 바다'물은 난류라 하고 열대 지방으로 흐르는 찬 바다'물을 한류라 한다.

영수— 할아버지 우리 나라 근처를 흐르는 해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 우리 나라는 일본 《규슈》 남쪽 앞 바다에서 《구로시호》 난류가 갈라져서 한 줄기는 대만 해협을 지나서 동해로 들어 오고 다른 한 줄기는 제주도 남쪽을 거쳐 황해로 들어 오는 난류가 있다. 또 쏘련 연해주 근방과 북반부 동해안 연안 일대를 스쳐 남해 가까이에 이르는 연해주 해류 혹은 북조선 해류라는 한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처럼 한류와 난류가 강원도, 함남도 일대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여 그곳에서는 더운 물에서 생활하는 고기들과 차거운 물에서 생활하는 고기들이 모이게 된단다. 이것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영수— 우리 나라 근처에는 어떤 수산 자원이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삼면이 바다로 싸인 우리 나라는 참으로 무진장한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 나라 바다엔 명태, 가재미, 고등어를 비롯해서 522종의 어족들이 있고 그리고 굴, 조개, 오징어 같은 연체 동물은 130 여 종, 게, 가재 같은 게류는 120 여 종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해삼, 삼바리 같은 극피류 동물, 물'개, 고래 같은 수중 포유류들과 미역, 곤포 같은 해조류를 모두 합하면 무려 1,000여 종이 훨신 넘는다. 이처럼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는 해양국인 우리 나라는 수산 자원이 풍부하며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힘에 달려 있다.

인규— 할아버지! 이 무진장한 바다 속 보배를 모두 캐 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척척 할아버지— 우선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김 일성 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도 하며, 뽀트도 타며, 고기도 잡으며 누구나 바다를 두려워 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단련하며 나아가서는 바다를 정복하는 용사가 되여야 한다.

인규— 할아버지 잘 알았습니다. 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열심히 공부하여 꼭 선장이 되겠어요.

영철— 난 학교를 졸업하면 어로공이 되겠어요.

금옥— 나는 녀자 기관장이 되겠어요.

영숙— 나는 어류 가공 기사가 되겠어요.

척척 할아버지— 참 모두들 훌륭한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바다에 대하여 학습하고 바다와 더욱 친근해 져야 한다.

학생들— 네… 그럼 할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요.

척척 할아버지— 오냐 잘들 가거라…

나를 몹시 흥분시켰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나의 소년단 생활을 돌이켜 보며 반성하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위하여》에서는 굴할 줄 모르는 혁명 투사들처럼 살며 배우려는 마음으로 불타게 하였습니다.

나는 책을 읽고 나서는 《읽은 책 기록장》에 내가 배우고 느낀 여러 가지 점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책에서 읽은 유익하고 재미나는 내용들을 분단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랬더니 동무들은 나에게 자꾸 더 이야기해 달라고 조릅니다. 나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제를 물리치는 15 성상의 영웅적 항일 투쟁에서 승리한 빛나는 업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 홍순 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로인들께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어서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더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칭찬해 주시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학교 도서실, 시내 서점 등과 잘 련계를 가지겠습니다.

그리하여 책 읽는 것을 나의 학과 학습과 결부하여 어떤 적은 시간이든 다 리용해서 훌륭한 책을 많이 읽기에 나의 있는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황해남도 송화군 오정 중학교
2년 윤 염복

고래에게 배를 끌린 아이

글 박인범
그림 남현주

바다'가 야영소입니다.

장난'군 바람이 천막에로 모래를 뿌리고 달아납니다. 들려 오던 나팔 소리도 흔들거립니다.

간식 시간이 되였다고 아이들은 식당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러나 당번인 용선이는 아까부터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먼 바다를 내다 보고 앉았습니다.

머리칼이 이마에서 날리거나 말거나 용선이는 아까 바다에서 본 고래 생각에 파묻혀 있습니다. 고기떼를 쫓아가던 물'개도 눈에 어리였습니다.

용선이는 눈을 깜짝이는 것도 잊어버린 듯 생각에만 푹 잠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선이는 야영소 기계'배 보다 더 크고 멋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등대'불이 반짝이는 먼 섬도 지나서 아주 멀리 까마득한 바다로 나갔습니다.

거기 바다'물 빛은 너무 깊어서 검고도 푸른 빛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고운 비단 빛갈 같았습니다.

용선이는 바다'물 속을 들여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별의별난 숫한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소담스레 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은 까닭이였습니다. 큰 고기, 더 큰 고기, 거무스레한 고기, 납작한 고기, 갈쭉한 고기들이였습니다.

용선이는 담박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들은 몽땅 그물 속에 들고 말았습니다.

《영차, 영차.》 용선이는 그물을 끌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물'고기들이 배창에 떨어져서 무용을 합니다.

배창에서부터 이물'간과 고물'간까지 어디에나 용선이가 탄 배에는 생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는 무거워지고 바다'물은 배'전에서 찰랑거립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바다 속에는 웬 고기가 아까 보다 더 많이 몰켜와서 주둥이를 삐죽대며 심술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데려가지 않나요?》

하구 말입니다.

용선이는 할 수 없이 얼른 편지를 써서 물'고기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 배가 곧 부두까지 갔다가 올테니 기다려라》

하구.

그런 뒤에 용선이는 한시 바삐 배를 몰이 항구를 향해 떠났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찬 바다'바람이 바다'물을 산같이 휘몰아 가지고 덤벼 들었습니다.

용선이의 배는 곧 그 파도 속에 파묻히고 말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용선이는 왼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씨, 어림두 없다. 네따위 파도쯤은, 내가 이 물'고기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나누어 드릴 것인지 알기나 하니?——

하면서 용선이는 붉은 넥타이를 훨 풀어서 풍어기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사정 없이 용선이의 배를 때리며 물벼락을 씌워 주었습니다.

용선이의 얼굴에까지 짭잘한 바다'물이 끼얹혀졌습니다.

하지만 용선이는 키를 단단히 잡고 줄창 앞만 내다 보며 내달렸습니다.

달리고 달려도 아직 등대'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용선이의 배는 갑자기 큰 소리로 몇 번 퉁퉁거리더니 더 나가지 않습니다.

용선이는 재빨리 알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배에 중유가 없어진 까닭이였습니다.

큰 일은 나고 말았습니다.

용선이는 별 생각을 다해 보았으나 묘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용선이의 배 앞에 큰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서 물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용선이는 얼른 배에 있는 기다란 로프 두 가닥을 풀어서 그 끝에 뾰죽한 갈쿠리를 달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가닥은 왼편으로 던지고 또 한 가닥은 바른편으로 던졌습니다.

용선이가 던진 두 개의 갈쿠리는 고래 몸뚱이에 든든히 박혔던 것입니다.

고래는 너무도 아픈 나머지 물'살을 일쿠며 왼쪽 바다로 배를 끌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라침판을 보던 용선이는 얼른 바른쪽 로프를 잡아 당겼습니다.

고래는 꼼짝 못하고 바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달리기 시작 했습니다.

이렇게 용선이는 고래에게 배를 끌리워서 부두로 오게 되였습니다.

부두에는 언제 나오셨는지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들이 보였습니다. 또 동무들은 모두 손'수건을 흔들며 만세를 불러 주는 것입니다.

용선이는 이런 때일 수록 빼겨서는 안되겠다고 시침을 따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 용선이의 손에 과자를 자꾸 쥐여 줍니다.

그는 다른 동무가 아니라 식당에 가서 당번인 용선이의 간식 몫을 타온 경준이였습니다.

용선이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꼭 바다를 정복하는 용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용선이의 한낮 명상이였던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힘으로 10만 톤의 파고철을 수집하자고 호소한 함흥시 청소년들의 호소를 받들고 우리 학교 대에서는 《철은 공업의 왕이다》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빠른 속도로 해 나가자면 더 많은 기계가 요구되며 더 많은 기계를 만들자면 많은 철이 필요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매 분단 마다에 파철 탐사대와 파괴조, 운반대 등으로 파철 수집대를 조직하고 방과후 시간을 타서 파철 수집에 나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파철 탐사대들은 먼저 파철이 묻혀 있는 곳이나 산재해 있는 곳을 탐사하게 됩니다. 우리 탐사대는 파철 무더기와 몇톤씩 나가는 부서진 미국놈 땅크, 자동차 등 큰 파철을 발견하면 곧 파괴조 동무들에게 련락합니다. 파괴조는 호미, 마치, 쇠톱 등 기구를 가지고 와서 땅에 묻혀 있는 파철은 파내고 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운반하기 쉽도록 자르기도 하며 뜯어 내기도 합니다. 파괴조는 자기 일이 끝나면 곧 운반대 동무들에게 알립니다.

운반대 동무들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니야까, 구루마 등을 끌고 와서 운반합니다.

이렇게 하는 한편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운반할 수 없는 큰 파철은 수매소에 직접 알립니다. 그러면 수매소 아저씨들이 기중기가 달린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운반해 갑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철판으로 울바자를 만들었던 집은 싸리로 대신 만들어 주고 철로 만든 우물 뚜껑도 나무로 대신 만들어 놓으며, 깨진 가마로 돼지 물을 주고 있는 집에는 나무로 궁이를 만들어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마을에서도 많은 파철을 수집했습니다. 이리하여 지난 한달 동안에 4분단에서만도 67 톤의 파철을 수집하였고 1,000여 명의 우리 학교 전체 소년들의 힘으로 250 톤의 파철을 수집하여 나라에 바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좋은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여 보다 많은 파철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바치려고 합니다.

황해북도 황주군 흑교 중학교 대
파철 탐사대 대장 김 순기

저도 숙제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던 영남이 상학종이 울리자 남철이 보고

영남— 얘 남철아 너 숙제장 좀 빌리렴.

남철— 나 숙제하지 못했어.

영남— 넌 숙제도 안해가지고 어떻게 학교에 오니?

남철— 넌?

량강도 갑산 고급 중학교 대
문 필전

형과 아우

항상 저만 안다고 뽐내는 형은 아우와 함께 달'밤에 개울을 지나 가고 있었습니다.

동생—형! 오늘 밤의 저 달 반쪽은 어디 있어?

형—것두 몰라 이 무식쟁이야! 반쪽은 저 물 속에 있지 않니……

동생?!………

강원도 안변 초등 학원 대
김 찬수

뽀트 놀이

1. 유희 전에 준비할 일

① 유희자들을 짝수가 되도록 두 편 혹은 적당히 나누고 각 편에서는 1, 2의 번호를 부쳐 출발선에 정렬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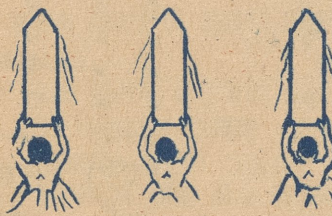
② 뽀트를 그림과 같이 만든다.

③ 기'발을 편수 대로 준비한다.

④ 유희장과 유희자들은 그림 처럼 정렬한다.

2. 노는 방법

① 지도자의《시작》하는 신호에 의하여 한 유희자는 뽀트를 타고 량 손으로 물을 저으며 다른 한 유희자는 뽀트 뒤를 잡고 발로 물을 차며 기'발'대를 향하여 빨리 간다.

② 귀환점 기'발'대에 도달하면 탔던 유희자는 내리고 밀던 유희자는 타고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출발선에 돌아 온다.

③ 돌아 온 동무들은 다음 사람들에게 인계를 한다. 다음 사람들은 ① ②의 방법으로 경기를 계속한다.

④ 만일 도중에 뽀트에서 떨어 지거나 걸어서 뽀트를 밀면 그 자리에서 곧 시정시켜야 한다.

3. 유희에서 주의할 점

① 물깊이는 가슴 정도되는 곳에서 할 것.

② 출발선에서 정확히 인계하도록 할 것.

③ 물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기'발'대를 세우도록 할 것.

④ 유희자의 체질에 따라 그 거리를 조절할 것.

고기 잡이

1 유희 전에 준비할 일

①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을 만든다. 그중 한 조는 《어로공》이고 다른 한 조는 《고기》로 한다.

② 유희자는 셋씩(혹은 넷씩) 짝을 지을 수 있게 인원을 조절한다.

2. 노는 방법

① 지도자의 《시작》하는 신호와 함께 《어로공》들은 셋씩(혹은 넷씩) 그림처럼 손을 서로 잡고 《고기》를 잡기 시작한다.

② 《고기》는 《어로공》에게 잡히지 않게 도망친다.

③ 《고기》는 《어로공》의 손이 닫히기

전 까지 《어로공》의 팔 밑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

④ 《고기》는 《어로공》이 서로 손을 잡지 못하도록 물을 뿌릴 수 있고 물을 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로공》을 손으로 떠밀거나 잡은 손은 끊지 못한다.

⑤ 《어로공》은 그물(서로 손을 맞잡고)로써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⑥ 《어로공》이 《고기》를 따라 갈 때는 반드시 그림과 같이 서로 손을 잡고만 따라 갈 수 있다.

⑦ 《고기》는 《어로공》이 서로 손을 련결한 원형 안에 들어 갔을 때 잡힌 것으로 된다.

⑧ 잡힌 《고기》는 다시 《어로공》이 되고 《어로공》 한 사람은 고기로 된다.

3. 유희에서 주의할 점

① 물 깊이는 허리 정도 되는 곳이고 물'결이 세지 않은 곳에서 실시할 것.

② 너무 오래 동안 유희를 계속하지 말것.

혁명 전적지로 찾아 가기

1. 유희 전에 준비할 일

①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② 물 속에 있어서도 잘 보이는 돌 혹은 쇠표에 전적지명(혹은 기타)을 쓴 것을 준비한다.

③ 돌 혹은 쇠표 수 만큼 기'발을 준비하고 그 기'발에 돌 혹은 쇠표에 쓰인 전적지 명(혹은 기타)을 써 넣는다.

2. 유희장과 유희자의 배치

① 유희장은 그림과 같이 만든다.

② 출발선에서 10m~15m 지점에 표식 기'발을 세우고 그곳에 전적지명(혹은 기타)을 쓴 표들을 넣어 둔다.

③ 표가 있는 곳에서 20m~30m되는 곳에 전적지명(혹은 기타)이 쓰인 기'발을 세워 둔다.

④ 유희자들은 2렬 종대로 출발선에 정렬한다.

3. 유희 방법

①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유희자들은 표가 있는 곳으로 헤염 쳐 가서 잠수하여 표를 주어 보고 그 표에 쓰인 기'발을 향하여 빨리 간다.

② 유희자들은 전적지 명(혹은 기타) 기'발 있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 오면서 지도자에게 표를 주고 출발선에 있는 자기 편 다음 사람의 손'바닥을 친다.

③ 다음 사람도 ①②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④ 이렇게 하여 마지막 사람이 먼저 출발선으로 들어 오는 편이 승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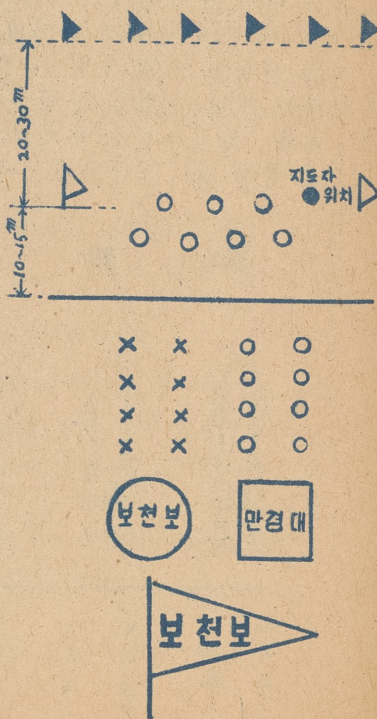
5. 유희 할때 주의할 점

① 물 깊이는 가슴 깊이를 넘어선 안 된다.

② 전적지명은 학과 혹은 조선 로동당 력사에서 나오는 지명을 선택하되 적당한 수로 할것.

③ 돌 혹은 쇠표에 쓴 글자가 지워지지 않게 뼁끼로 쓸것.

④ 출발점에서 인계를 철저히 할것.

⑤ 수영은 어떤 것이나 다 할 수 있으나 걷지는 못한다.

유희 어리석은 암탉

글 려 환 욱　　　　그림 현 재 덕

조합 양계장에는 수천 수백 마리의 닭들이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조합원들이 주는 음식에 만족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닭들 속에는 한 마리의 암탉만이 유별나게 알을 잘 낳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가 울 안에 나서면 닭들은 부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 보군 하였습니다.

그들은 뛰여난 암탉을 존경하여 머리 숙였고 그의 업적을 높이 찬양하면서 진심으로 건강을 축원하여 주었습니다.

동무들로부터의 존대를 받아 온 암탉은 어느사이엔가 자존심이 풍선처럼 커져서 모든 일에서 우쭐렁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금닭이라 하면서 만약 내가 알을 낳지 않는다면 조합은 그 얼마나 곤경에 빠져 거덜이 날 것인가 그렇게 되는 날이면 영낙없이 양계장은 문을 닫게 될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맛 있는 음식과 포근한 잠'자리를 꿈꾸면서 쌀'겨같은 것은 아예 눈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암탉은 조합원 누나를 찾아가서 귀밀이나 보리만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누나는 다른 닭들과 차별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양계장의 닭은 수천마리나 되였으니까요. 이에 격분한 암탉은 분풀이로 아예 알을 낳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사람들은 《귀중한 금닭아, 제발 그전 대로 알을 낳아 주렴》 하고 빌면서 맛 있는 귀밀과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 어리석은 암탉은 우정 음식을 먹지 않았고 침침한 한 곳을 찾아들어 눕군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가 며칠이 흘러 갔어도 암탉은 알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조합원 누나는 암탉의 배를 주물러 보더니 어처구니 없어 《허허》한번 웃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되겠는걸 이 암탉은 이젠 통조림 공장으로나 보내야겠군.》 이 말을 들은 암탉은 그만 눈 앞이 아찔해 졌습니다.

그때에야 어리석은 암탉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담! 난 응당히 겸손하고 불평을 부리지 말았어야지…》

이 어리석은 암탉이 통조림 공장으로 갔는 지 안갔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것으로 보아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① 소년단원 동무들!
8. 15 해방 14주년을 1차 5개년 계획의 승리로 맞는 공화국 북반부는 명절의 기쁨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생활은 나날이 늘어 가고 가는곳 마다 웃음과 노래로 행복은 꽃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 미국놈들이 짓밟아 놓았으며 또한 현재도 밟고 있는 우리 조국 남쪽 땅은 어떨가요? 나는 막 이제 그곳에서 날아 오는 길이예요. 내가 서울 하늘을 날았을 때였습니다.
거리에는 누더기를 걸친 수십만의 로동자 아저씨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이고 있었으며 깡통을 찬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다리를 끌며 맥없이 걸어가는 한 로동자 아저씨와 만났습니다.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애요?》.《나는 밤낮 살아 가기 위해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하였건만 자본가 놈은 리익이 나는게 없다고 일터에서 내쫓았단다.
집에서 나의 안해는 병으로 신음하고 아이들은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나는 벌써 몇달 째 일'자리를 찾아 헤매이지만 써주겠다는 사람은 없구나.》
동무들! 남조선에는 이 아저씨와 같이 일터와 그날 이어갈 끼니가 없는 로동자들의 수는 660 만 명을 넘고 있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예요.

② 남쪽 땅 강원도 평찬군도 남반부 다른 농촌과 같이 기아와 굶주림이 구름처럼 떠 돌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 김 진하라는 농민을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섯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작년 농사에서 18 가마니의 곡식을 수확하였답니다.
그러나 추수와 함께 이 농민에게도 《토지 수득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이 나왔는데 그 세금은 이 농민이 피땀을 흘리면서 번 곡식을 다 팔고 집까지(그의 집도 아니지만) 몽땅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많은 것이였답니다.
식량이 떨어져 풀로 살아가는 남반부 농민은 오늘 300 만 명을 넘으며 이는 더욱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③ 내가 남반부를 날아 다니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이 책가방 대신 깡통들을 차고 거리를 헤매이고 있는 그것이 였습니다.
지금 남반부의 아이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납금을 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설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였습니다.
서울 전농 《국민 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의 무너져 가는 교실에 90~100 명씩이나 되는 학생들을 넣고 《콩 나물처럼》 꽉 들어 앉아 서로 엉덩이에 머리를 대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교실이 없는 천 여 명의 아동들은 할 수 없이 운동장에 엎드려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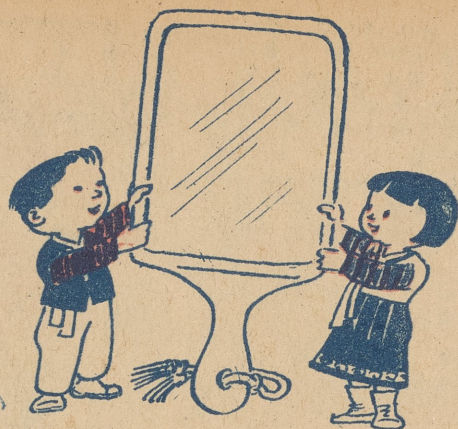
④ 내가 인천 근방의 어느 농촌 부락을 지날 때였습니다. 저수지에서 약 100여 명 가량의 소년들이 목욕하며 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 탕》하는 총 소리와 함께 조 명길 소년이 붉은 피를 쏟으며 그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웬 영문인지 모르는 소년들은 두리번거리다 약 80 메터 되는 곳에 인간 백정인 미군 병사 한 놈이 이'발을 드러내놓고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놈이 천진 란만하게 노는 소년들을 쏜 것입니다. 얼마나 몸서리 치는 일입니까!

남반부 소년들은 언제 미국 승냥이들의 사격 목표가 되여 쓰러질지 알 수 없는 무서운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⑤ 내가 서울시 하늘을 다시 날을 때였습니다. 서울 시내 서대문구 본랑동에 있는 소위《홀트 해외 양자회》에서는 갑자기 고아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가 보았더니 코가 한자씩 나온 미국 양키놈들이 총과 칼로 위협을 하면서 120 명의 고아들을 풍을 친 자동차에 강제로 싣고 있었습니다.
고아들은 이 자동차를 타면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역 땅에 노예로 끌려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사코 반대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90 명의 고아들이 지난 7월 19일과 30일에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 미국으로 영원히 팔려 가게 되였습니다. 이 얼마나 천하에 용서 못할 범죄적 행위입니까

⑥ 내가 인천시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인천 시내의 2만 여명 부두 로동자들은 자본가놈들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당장 내라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체불 임금을 청산하라!》라고 쓴 수많은 프랑카트를 들고 장시간 거리를 행진하였답니다. 또한 시위자들은 스피카를 통하여 이 정당한 투쟁을 도와 줄 것을 인천 시내 시민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 왔고 굶주림으로 하여 쓰러져가고 있는 남반부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미제와 리승만 도배의 온갖 만행을 반대하여 각곳에서 궐기하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⑦ 내가 날아 다닌 각곳에서 본 것만 해도 서울시내 동국 무선 고등 학교와 경상북도 대구시내 농인 고등 학교 학생들은 리 승만 도배가 《입학금, 기부금》,《학부형 회비》 등을 인민들에게서 긁어 모아 학교를 돈'벌이 터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여 동맹 휴학을 단행하였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남반부 형제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미제가 하루속히 물러가야만이 남반부 형제들도 우리와 같은 행복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잘 살 수 있답니다.

행동의 거울

《그것도 학교를 위한 일인가?》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행동과 그릇된 행동을 비쳐 주는 행동의 거울은 평남 남포 고급 중학교 인민반 4학년 2반 박 찬섭 동무를 비쳤습니다.

그는 남포 조선소 아저씨들이 기르는 토끼장에서 몰래 토끼 한 마리를 훔쳐서 마치 자기 토낀 것 처럼 하고 학교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가요?》

《아름다운 일》

이 거울에 비친 소년단원들은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평남도 룡강 고급 중학교 초급반 소년단원들이랍니다. 이들은《한 둥지 더 올리기》운동을 전개하여 방과후 시간을 타서 새둥지를 올리고 있는데 며칠 동안에 144 개의 새둥지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8. 15 해방 명절까지 5천 개의 새둥지를 올릴 것입니다.

《피마주 밭 주인은 누구인가?》

이 거울에 비친 피마주 밭을 보십시요. 심기만 하고 거름도 주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아 피마주보다 풀이 무성하고 피마주는 영양 부족으로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 피마주 밭 주인은 평북 정주군 독창 중학교 2학년 2반 동무들이랍니다. 동무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매소에 나타난 두 소년》

거울 속에 나타난 개성 지구 판문군·림산 중학교 초급반 1학년 신 현문 동무와 그의 동무를 보십시요. 파고철을 수매한 돈을 가지고 과자를 사 먹고는 여기에 재미가 나서 또 수매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매원 아저씨가 창고에 들어간 사이에 수매소 파철'더미에서 파철을《수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소년단원들의 행동일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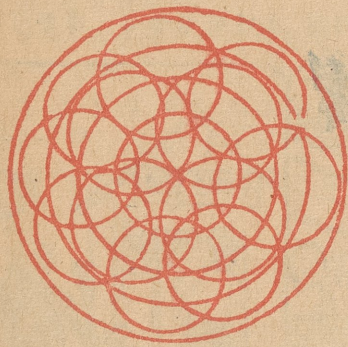
《한 자루의 연필이라도》

거울 속에 나타난 평남 녕원군 풍전 중학교 1분단 강 제성 동무를 보십시요. 연필이 싸다고 해서 수십 자루씩 사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장난'감에 구멍이 뚫어지면 연필을 꺾어서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성 동무는 함부로 연필을 꺾어서는 내버리기도 합니다. 이 동무는 한 자루의 연필에도 로동자 아저씨들의 피땀이 스며 있다는 것도 모르는 동무이며 더우기는 연필을 싸게 파는 국가의 배려를 잘못 알고 있는 동무임에 틀림 없지요.

몇개의 원이 있을가요?

소년단원 동무들!

아래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요.

수많은 원이 서로 엉켜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몇개의 원으로 되고 있습니까?

5호 현상 문제 해답

담배를 팔던 소년은 돈 1,000 환을 손해 보았다.

현상 문제 당선자

평양 초등 학원	김 병찬
평양 종로 중학교	김 순
평양 문신 중학교	차 남진
평남 온천군 서화 중학교	김 련태
평남 증산군 연곡 중학교인민반	최 도춘
평북 운산군 북진 중학교	명 찬복
황북 신평군 만년 중학교	비 명혁
황북 수안군 평원 중학교	전 칠성
황남 태탄군 태탄 중학교	정 해영
자강도 만포군 심강 중학교	리 명숙
자강도 강계시 북문 중학교	박 창복
량강도 보천군 청봉 중학교	김 태일
량강도 백암군 유평 중학교 인민반	한 금주
함북도 무산군 차유 중학교	신 상현
함남 신포군 령무 중학교 인민반	한 동필
함남 함흥시 경흥 중학교	리 용영
함남 신상군 관평 인민 학교	박 갑인
강원도 평강군 옥동 중학교	리 경숙
강원도 통천군 통천 중학교	고 명철
개성시 만월 중학교	리 교선
개성시 고려 중학교	리 기형

☆

정 정

《소년단》 1959년 7월호 39페지 그림 (7) 설명에서 우로부터 3번째 줄에 있는 《…학원의 자유와…》를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서와…》로 정정함.

1959년 8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8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8호 (총 118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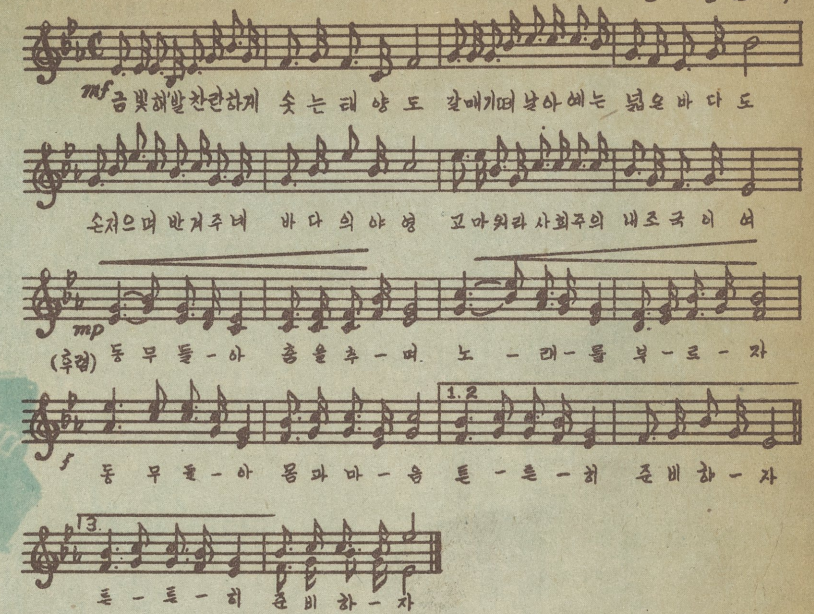
ㄱ—24276 값 25 전 150,000부 발행

바다의 야영

명랑하고 씩씩하게

남응손 시
공경일 곡

금빛해발찬란하게 솟는태양도 갈매기떠날아예는 넓은바다도
손저으며 반겨주네 바다의야영 고마워라사회주의 내조국이여

(후렴) 동무들—아 춤을추—며 노—래—를 부—르—자
동무들—아 몸과마—음 튼—튼—히 준비하—자
튼—튼—히 준비하—자

2. 백사장에 붉게 피는 해당화도
송림 새로 설렁대는 맑은 바람도
속삭이며 반겨주네 바다의 야영
영웅 나라 아들딸들 행복하구나
(후렴)

3. 꽃구름 피여나는 푸른 하늘도
풍어기를 펄럭이며 달리는 배도
우리 행복 반겨주네 바다의 야영
받으시라 우리 인사 내 조국이여
(후렴)